

결혼과 여성의 지위 - 할머니들의 아기 기르기

요즘 엄마 노릇엔 정년퇴직도 없다

딸의 해방이 어머니의 구속을 낳는 평등시대의 아이러니

여성들이 시집갈 간판만을 위해 대학을 진학하던 시기는 지나갔다. 여대생들은 낙타 바늘구멍 뚫기와 같은 구직난 속에 취업을 찾아나서고 있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도 현저히 줄었다. 노동법에서는 물론이고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특별법도 생겨나서 '여자라는 이유로' 취업기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결혼을 퇴직 압력의 사유로 삼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해 두었다. 여성들이 아무진 마음이집만 가지고 준비한다면 사회진출의 기회가 열마든지 주어져 있는 세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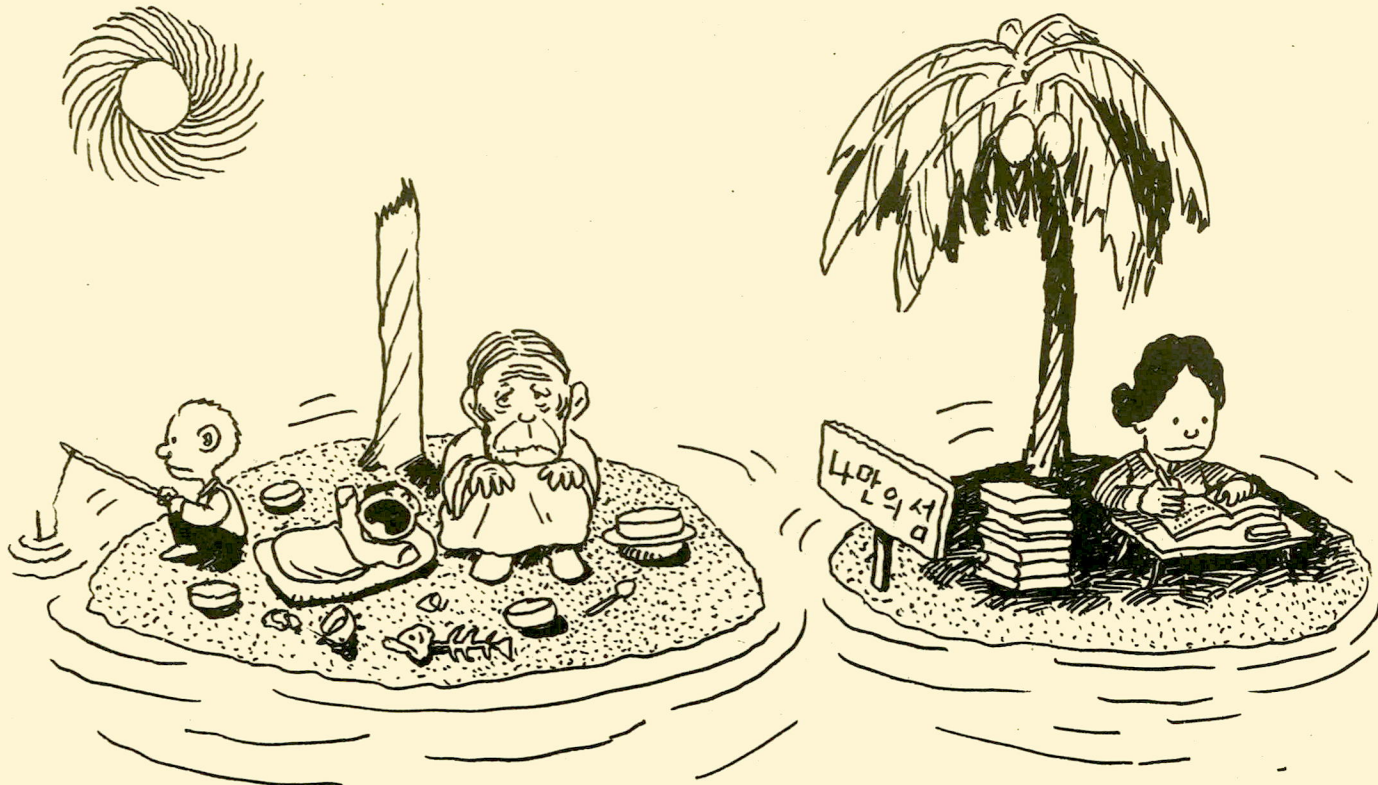
손주 안봐주기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

젊은 여성들의 활동무대가 신나게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편에선 어머니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남녀평등 시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젊은 층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지수가 높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대별 여성간에는 오히려 불평등 지수가 높아가고 있다. '평생 전문직'을 원하는 여성들은 결혼이나 육아 문제로 직장생활을 포기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어머니들은 딸과 며느리의 '장래'를 위해 손주 기르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옛날 같았으면 자식들 봉양을 받으면서 노후를 즐길 나이에 이삼십년 전에 해했던 육아라는 중노동에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손주를 맡아 기르는 요즘 할머니들의 처지다. 젊은 여성들은 이제 시대 흐름을 타 집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은 반면 이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50평생을 집안에 갇혀 살다가 겨우 대문 밖을 나서려던 할머니들이 다시 부엌으로 발길을 되돌려야 하는 역전의 처지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손주 기르기가 할머니의 몫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시류를 재빠르게 읽어낸 할머니들은 결혼하는 자식앞에서 "난 애는 못 봐 준다"고 아예 선언하기도 하고 마음 속으로 아이를 맡아 달라는 자식들의 간청을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기도 하며 다가올 함정을 비켜갈 준비를 하기도 한다. 이런 할머니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조용한 외침은 '손주 안 봐 주기 운동'으로 번져갈 추세다.

대전에 사는 59세의 할머니 김순이 씨는 2년 전 아이를 맡아달라는 아들 내외의 간청을 거절한 적이 있다. 서울에서 맛벌이를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는 아들 내외는 아이를 낳은 후 육아문제로 고민을하다가 어렵게 어머니를 찾아왔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 새끼는 다 키운다”는 옛말도 요즘 젊은 엄마들에겐 통하지 않는다. 무한정으로 길어지고 있는 딸들의 의존기는 ‘시집 보내고 나서 더 할일이 많아지는’ 새로운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아들이건 딸이건 결혼시키고 나면 살림 걱정을 해줘야 하고 아이가 생기면 손주 키울 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이니 요즘의 어머니 노릇에는 정년퇴직도 없어졌다.

김순이 씨는 우선 몸이 아프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를 전적으로 맡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자식이 와서 아이 길러 달라고 부탁하는데... 안됐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맡겼다고 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김 씨는 아들내외에게 다른 방법을 권했다. 김 씨의 동네에 사는 젊은 엄마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말에 따라 아들 내외는 아이를 대전에 두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했다.

서울에 온 아들내외는 잘 때만이라도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자면서 할머니의 정을 쏟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김 씨의 생각은 달랐다. “아이가 밤낮으로 자꾸 장소를 바꾸면 불안한 데다가 한번 할머니 품을 알게 되면 안 떨어지려고 해서 애를 먹게 된다”는 이유로 손주를 집에 데려오지 않았다.

미국에서 보내온 손자 안고 안절부절하는 할머니

60대 초반의 한 어머니는 최근 미국서 박사학위를 마친 아들이 한국에 놓고간 손자를 길러야 할 짐을 떠맡고 전전긍궁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마친 자연과학자인 이 아들은 학위를 끝내고 나서 최근 국내에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귀국했다. 가족이 모두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며느리는 얼마 전에 시작한 공부를 하기 위해 남아 있고 아들과 손자만 왔다는 것이다. 열흘 남짓 머물던 아들은 손자를 남겨둔 채 미국으로 들어갔다. 미국에서 태어나 만 2년6개월인 손자는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한국말과 영어를 마구 섞어 쓰고 있어서 이 할머니는 가끔 가다가 섞여 나오는 ‘베이비’ 어찌구 하는 단어 밖에는 알아듣기가 힘들다.

50넘어 간신히 얻은 자유, 육아에 다시 발목 잡혀

며느리는 ‘내가 잘 돼야 나중에 남편도 아이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겠으니 ‘당분간 어머니가 아이를 맡아달라’고 전화로 부탁해 왔다고 한다. 아들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친손자인 만큼 의무감도 느껴져 키우기로 하지만 난데 없이 나타난 미국 손자를 떠맡은 할머니는 안절부절이다.

“손주 봐준 공은 없다”는 말이 있다. 또 어떤 거지에게 얘기를 봐주면 먹여 살려 주겠다고 했더니, 사흘동안 얘기를 보더니 거지가 ‘내 도나지르다

라’고 하더라는 옛 얘기도 전한다. 그만큼 아기보기는 중노동이라는 말이다. 신체적으로 급격한 노화가 시작되는 50대의 할머니들에겐 육아는 무엇보다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또 자식들의 출가는 일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바쳐온 어머니들에게 비로소 자기생활이 가능한 유일한 시기이기도 하다. 손주를 봐달라는 자식들의 간청에 난색을 보이는 이유는 아기 보기가 육체적으로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간신히 얻어낸 자유를 담보로 잡혀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력이 남아 있어서 여행이나 종교생활이라도 즐겨볼 만한 이 시기에 다시 갇힌채 아이를 들쳐업고 다니기란 여간한 각오가 없으면 안되는 일이다.

책임감이 더 무거운 할머니들

손자를 맡아기르던 할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렸다. 흔히백산이 돼서 사방으로 아이를 찾아다니던 할머니는 이웃집에 가서 놓고 있는 손자를 발견하고는 통곡을 했다. “손자가 아니고 내 아이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 할머니의 이야기다. 자기 자식이라면 자기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일테지만 손자가 되고 보니 그보다 더한 책임이 깨

에 훨씬 더 당황해야 했다고 한다.

친정 어머니들의 딸 시집살이

육아 문제에 봉착한 젊은 여성들에게 제일 먼저 불려오는 것은 친정 어머니들이다. 누구보다도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친정 어머니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손주 보기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며느리 앞에서는 ‘아이는 못 봐준다’고 냉정하게 선언할 수 있는 어머니들도 딸의 장래가 걸린 외손주의 육아문제에선 백번을 양보하는 게 보통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딸을 위해 외손주를 돌봐주면서 딸 집의 살림을 봐 주고 이화자 씨는 늘 딸에게 섬세한 감정을 느낀다.

“아이를 친정 엄마한테 맡겨 놓고는 당연한 줄 알아요. 친정 엄마라고 믿는 마음에서 그렇겠지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꽤 씁쓸해요. 애 우유값조차도 제대로 주질 않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하는 걸 보면 내가 딸 잘못 키웠나 싶기도 합니다.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생활은 친정엄마한테 다 의존하면서 돈 번 건 시집에 다 갖다주고... 이제 더 이상은 아이를 못 보게 되고 만능이

지금 또 배가 불러있는데 둘째까지 봐달라고 그럴 것 같아서 말이죠.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요?”

젊은 세대 편의 위해 대가족제도 이용돼

이 어머니는 딸에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는 희생적인 어머니로 인식돼 있다. 헌신적인 엄마 노릇이 2세 성장기에 한정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딸이 낳은 아이까지 자기 몫에 포함돼 있는 줄 알았다면 이 어머니의 딸 교육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엄마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집안일을 면제받으며 공부 잘하고 칭찬 받는 여자로서 자라난 이 딸은 아이를 낳고 나서도 어머니의 손길을 요구하며 시집에서 칭찬받기에 열심이다. 친정어머니는 늙어서도 무보수 노동자인가?

아이도 잘 기르고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젊은 남녀의 편의에 따라 대가족이 확대돼 가는 것이 요즘 추세이기도 하다. 전통에서 편리한 것만을 취하며 일방적인 친인척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적응방법이 되고 있다. 탁아제도를 확충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대가족 제도에서 3세에게 쏟아지는, 물량을 초월한 ‘손주사랑’의 진가를 잃고 싶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탁아제도가 완비된다 해도 ‘제도’보다는 ‘할머니 손 끝’을 선택하게 되리란 보수적인 전망도 가능해진다.

사회에선 ‘평등’ 투쟁, 집에선 ‘자기만의 방’ 추구

“아무리 힘들어도 지 새끼는 다 키운다”는 옛말도 요즘 젊은 엄마들에겐 통하지 않는다. 무한정으로 길어지고 있는 딸들의 의존기는 ‘시집 보내고 나서 더 할일이 많아지는’ 새로운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아들이건 딸이건 결혼시키고 나면 살림 걱정을 해줘야 하고 아이가 생기면 손주 키울 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이니 요즘의 어머니 노릇에는 정년퇴직도 없어졌다.

많이 배워, 똑똑한 딸들은 사회로 나아가 평등을 ‘실현’하고 집안에서는 ‘자기만의 방’을 갈구한다. 이런 딸을 둔 ‘행복해야 할’ 어머니들은 나이 만큼 늘어만 가는 부담 때문에 가슴 한편이 무겁기만 하다. 이 어머니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할 딸은 누구일까? 딸들의 해방이 어머니들의 구속을 낳는 요즘의 가족문화는 ‘행복의 제조업’ 게임판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가톨릭 기자)